



직원들의 적극적 참여로 KISTI의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새로운 기획코너입니다.



제안자  
안설아 선임연구원  
(바이오인포매틱스팀)

## Kist!ny

KISTI는 한국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탄한 지식정보인프라를 구축해야만 하는 운명을 지녔습니다.

KISTI 직원인 우리 역시 국가 발전을 위해

나날이 새롭게 자신의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운명입니다.

“KISTI is our desTINY” 인 것입니다.

2008년 새 해가 열렸습니다.

KISTINY!! “KISTI makes New Year”

새로운 한 해를 KISTI와 함께,

KISTI人으로 더욱 밝고 힘차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KISTINY라는 CI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 Kist!ny

## KISTI is our desTINY

**KISTINY는 “KISTI is our desTINY”  
즉 KISTI가 우리의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KISTI가 구축하고 있는 국가 과학기술 지식정보인프라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운명적으로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아 봤습니다. 여기에 destiny가 갖고 있는 '선견(지명), 목표'라는 의미를 'KISTI가 선견지명을 가진 과학기술 정보 연구기관의 선두주자로서, 대한민국 모든 연구자들을 선도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다'는 뜻으로 재해석 해 보았습니다.

## KISTI makes New Year

**KISTINY는 “KISTI makes New Year”  
즉 KISTI는 언제나 새로운 시대를 개막하는 기관이라는 뜻입니다.**

KISTI가 과학기술 지식정보인프라 구축의 선도 기관으로서 정보서비스는 물론 슈퍼컴퓨팅과 고성능네트워크 등 첨단 사이버인프라 구축을 통해 한국 과학기술의 내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기관이라는 의미를 담아 봤습니다.

**“KISTI is our desTINY”** 라고 믿습니다.